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라지영¹⁾ 허가영²⁾

요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이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완전매개효과를 통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양육참여를 촉진하여 후속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어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재적 역할을 조명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육아정책, 육아지원제도, 아버지 양육참여, 후속출산

I. 서론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발표하고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

* 본 논문은 제2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2024. 8. 30)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 수료
2)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 수료

한 사전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손덕호, 2024; 최오현, 2024).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강력한 권한 위임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으로(심우일, 2024),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OECD 국가가 되었다. 이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며 여러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요인(고광만·김소아, 2014; 김일옥·왕희정·정구철 외, 2011; 송민영, 2018; 이경은·강희송·안혜경, 2023), 아버지 양육참여 등 어머니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정 변인과 사회적 요인(이보라, 2020; 이진화·김경은·임원신, 2015; 임현주·이대균, 2013; 임효진·박휴용·장경은 외, 2015),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 활용 효과(김진욱·권진, 2015; 박철순·고은미, 2018), 취업모를 중심으로 한 후속출산 관련 변인(배광일, 2015; 송영주·이주옥·김춘경, 2011; 이정원, 2009; 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 이진화·조하나·최혜윤, 2012)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에서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지원정책과 출산 계획 간의 관계(Artamonova, Sorsa, Berg et al., 2024; Geisler, & Kreyenfeld, 2011; Zhang, Cai, Shi et al., 2023), 기업의 육아정책과 출산 계획 간의 관계(Yao, 2024; Zhao, 2024), 성평등적 사고 및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용과 출산 계획 간의 관계(Lee, 2022; Thomas, 202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출산 계획 간의 관계(Friese, 2000) 등이 대표적이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정책 활용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이 현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가정 내 자녀 돌봄의 분담이 출산 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 돌봄은 양육의 긍정적 가치와 자녀와의 일상 공유를 통한 만족도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 중에서도 남성의 참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생계형 아버지의 이미지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겸비하도록 사회화된 아버지는 일과 가정 양립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김용훈·이경숙, 2022). 실제로 저출생 심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발표에서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돌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돌봄권을 확립을 강조하였다.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제도 지원은 돌봄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개인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 방식이다. 근무제도는 가족정책 중 시간 지원 정책에 해당하며(정재훈·박은정, 2012), 근무 중 지원(유연근무제)과 휴직 중 지원(육아휴직)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무 융통성이 보장되는 근무제도로는 유연근무제가 대표적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공간의 정형성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시간, 공간, 근무 방식의 유연성을 의미하며(홍승아·이미화·김동기, 2011) 대표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된다.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자녀 양육 시간을 확보해 주며 궁극적으로 직장가정에서의 성별 분업 완화에 도움을 준다(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최지은·김현경, 2019).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을 위해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휴직을 통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휴직 이후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생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박은정·이재희·박은영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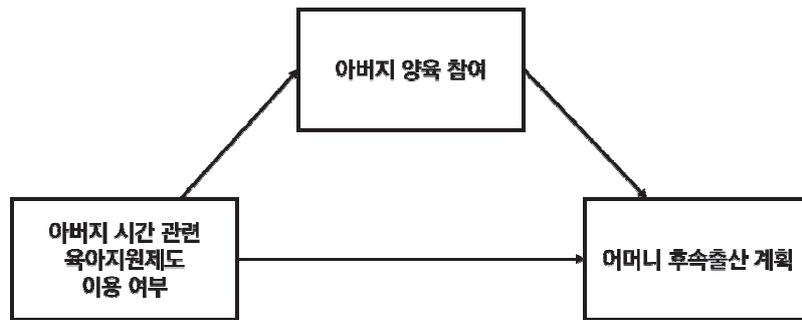
아버지의 돌봄권 확립과 저출산 대책으로 근무제도 지원이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 중심의 양육 문화를 변화시키고 출산율 저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 조운경과 민웅기(2012)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새로운 아버지상이 형성됨을 밝혔으며, 최지은과 김현경(2019)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를 활용하는 일부 소수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근무제도 지원이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여 육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시키고(고광만·김소아, 2014; 임효진·박휴용·장경은 외, 2015), 이는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배광일, 2015; Yang, He, Zhang et al., 2023). 특히 일·가정 양립정책은 후속출산의도에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라는 매개 요인을 통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송민영(2018)의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부부 특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한 고광만과 김소아(2014)의 연구는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아버지 대상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출산의도를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양육참여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관해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육아지원제도와 출산율 간의 단순 상관관계나 직접효과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으로, 제도가 실제 가정 내 양육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출산의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가구소득, 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 아버지 대상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순수 효과와 양육참여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의 전반적 경향 및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임신부 3,372명을 표집하여 자녀 출생 후 4개월 시점에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865가구가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해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문항의 결측치가 있는 1,162가구를 제외한 1,703가구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아버지(n=1,703)	어머니(n=1,703)
연령	30세 미만	132(7.8)	250(14.7)
	30세 이상 ~ 35세 미만	544(31.9)	781(45.9)
	35세 이상 ~ 40세 미만	696(40.9)	516(30.3)
	40세 이상	331(19.4)	128(7.5)
	무응답	-	28(1.6)
학력	고등학교 졸 이하	323(19.0)	248(14.6)
	전문대(2·3년제) 졸	295(17.3)	362(21.3)
	대학교(4년제) 졸	927(54.4)	906(53.2)
	대학원 석사과정 졸 이상	158(9.3)	159(9.3)
	무응답	-	28(1.6)
취업/학업여부	취업 중	1638(96.2)	854(50.1)
	학업 중	10(0.6)	17(1.0)
	미취업 / 미취학	55(3.2)	804(47.2)
	무응답	-	28(1.6)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도구의 구성 및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과 관련된 육아 지원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별로 이용 여부를 알아보는 것	7	-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가 인식한 남편의 자녀 양육참여(필요 물품 구매, 돌봄 등)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4	.77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 어머니의 후속출산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것	1	-

가.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아버지용 질문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문항에 포함된 10종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여성 근로자 대상 제도는 제외하였다. 응답은 ‘이용함(1)’, ‘이용 안 함(2)’, ‘해당 없음(3)’으로 구성되었으나 분석을 위해 ‘해당 없음’과 ‘이용 안 함’을 통합하여 ‘이용 안 함(0)’, ‘이용함(1)’의 이항변수로 재코딩하였다. 또한 어떤 제도든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를 ‘하나 이상 이용(1)’,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미이용(0)’으로 구분한 단일 이항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가 개발하고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진이 최종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한국 아동패널 3차년도 질문지를 영유아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없음(6)’ 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어머니용 질문지의 ‘후속출산 계획 여부’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낳겠음(또는 임신 중)’과 ‘낳지 않겠음’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낳지 않겠음(0)’, ‘낳겠음(또는 임신 중)(1)’으로 재코딩하여 이항변수로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의 빈도와 백분율,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과 표준편차,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및 하위 제도별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과 로지스틱 매개분석(Logistic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매개분석은 Hayes가 보급한 PROCESS macro 4.2를 적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과정에서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및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의 전반적 경향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35.9%는 최소 하나 이상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64.1%는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제도별 이용률은 육아휴직(17.0%), 가족돌봄휴가(12.3%), 재택근무제(11.8%), 시차출퇴근제(6.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6.0%), 선택근무제(4.2%), 원격근무제(3.2%) 순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34.9%가 ‘낳겠음(혹은 현재 임신 중)’으로 응답한 반면 63.4%는 ‘낳지 않겠음’으로 응답하였고 1.6%는 응답하지 않았다.

<표 3>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의 경향 (N=1,703)

변인	내용	빈도(%)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전체	이용함 612(35.9)
		이용 안함 1091(64.1)
육아휴직	이용함	289(17.0)
	이용 안함	1414(83.0)

변인	내용	빈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함	102(6.0)
	이용 안함	1601(94.0)
가족돌봄휴가	이용함	209(12.3)
	이용 안함	1494(87.7)
시차출퇴근제	이용함	104(6.1)
	이용 안함	1599(93.9)
선택근무제	이용함	71(4.2)
	이용 안함	1632(95.8)
재택근무제	이용함	201(11.8)
	이용 안함	1502(88.2)
원격근무제	이용함	54(3.2)
	이용 안함	1649(96.8)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날것음	595(34.9)
	날지 않것음	1080(63.4)
	무응답	28(1.6)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의 평균은 4.16이며 표준편차는 0.75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반적 경향 (N=1,703)

	평균	표준편차	분산
아버지 양육참여	4.16	.75	.57

2.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및 하위 제도별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총 자녀 수($B=-2.06, p<.001$), 가구소득($B=-0.07, p<.05$), 맞벌이 여부($B=0.25, p<.05$)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 를

분석한 결과, 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87%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text{Exp}(B)=0.13$, $p<.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후속출산 가능성이 7%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ext{Exp}(B)=0.93$, $p<.05$).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후속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28% 증가하였다($\text{Exp}(B)=1.28$, $p<.05$).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하위 제도별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맞벌이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총 자녀 수($B=-2.06$, $p<.001$) 과 가구소득($B=-0.07$, $p<.05$)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도 아버지의 제도 이용 여부와 맞벌이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총 자녀 수($B=-2.07$, $p<.001$)와 가구소득($B=-0.07$, $p<.05$)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시차출퇴근제 이용 여부($B=0.67$, $p<.01$)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가정보다 어머니가 후속출산 계획을 가질 오즈(odds)가 약 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96$). 총 자녀 수($B=-2.07$, $p<.001$)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text{Exp}(B)=0.13$),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B=0.42$, $p<.05$) 역시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재택근무제를 이용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가정보다 어머니가 후속출산 계획을 가질 오즈(odds)가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52$). 총 자녀 수($B=-2.07$, $p<.001$)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text{Exp}(B)=0.13$),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직접효과

($N=1,703$)

변수	B	$S.E.$	$\text{Exp}(B)$	95% CI	통제변인(B)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전체	0.21	0.12	1.23	[0.97, 1.56]	-2.06***	-0.07*	0.25*
육아휴직	0.10	0.16	1.10	[0.81, 1.49]	-2.06***	-0.07*	0.22

변수	B	S.E.	Exp(B)	95% CI	통제변인(B)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0.01	0.24	1.01	[0.63, 1.62]	-2.07***	-0.07*	0.21
가족돌봄휴가	0.05	0.18	1.05	[0.75, 1.49]	-2.07***	-0.07*	0.21
시차출퇴근제	0.67**	0.26	1.96	[1.19, 3.24]	-2.07***	-0.06	0.22
선택근무제	-0.22	0.28	0.80	[0.46, 1.40]	-2.07***	-0.07*	0.20
재택근무제	0.42*	0.19	1.52	[1.06, 2.18]	-2.07***	-0.06	0.22
원격근무제	0.19	0.33	1.21	[0.64, 2.29]	-2.07***	-0.07*	0.21

* $p < .05$, ** $p < .01$, *** $p < .001$.

3.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유무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제도 이용 여부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모든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10 미만이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0.18$, $p < .001$) 이는 아버지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양육참여 점수가 평균적으로 0.18 증가함을 의미한다. 총 자녀 수($B=-0.11$, $p < .001$)는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하위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8.36$, $p < .001$).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0.17$, $p < .01$) 이는 아버지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

한 적이 있는 경우 양육참여 점수가 평균적으로 0.17 증가함을 의미한다. 총 자녀 수 ($B=-0.11$, $p<.001$)는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6.15$, $p<.001$). 총 자녀 수($B=-0.11$, $p<.001$)는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6.62$, $p<.001$). 아버지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0.13$, $p<.05$) 이는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양육참여 점수가 평균적으로 0.13 증가함을 의미한다. 총 자녀 수 ($B=-0.11$, $p<.001$)는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는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시차출퇴근제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6.14$, $p<.001$). 총 자녀 수($B=-0.11$, $p<.001$)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맞벌이 여부($B=0.08$, $p<.05$)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 여부와 가구소득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선택근무제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5.60$, $p<.001$). 총 자녀 수($B=-0.11$, $p<.001$)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맞벌이 여부($B=0.08$, $p<.05$)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근무제 이용 여부와 가구소득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7.01$, $p<.001$). 아버지의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0.15$, $p<.05$) 이는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양육참여 점수가 평균적으로 0.15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총 자녀 수 ($B=-0.11$, $p<.001$)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맞벌이 여부($B=0.08$, $p<.05$)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가구소득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원격근무제 이용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1653)=5.38, p<.001$). 총 자녀 수($B=-0.11, p<.001$)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맞벌이 여부($B=0.09, p<.05$)는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격근무제 이용 여부와 가구소득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회귀모형 적합도 및 분산분석

변수	R	R ²	수정된 R ²	F	df1	df2
전체	0.16	0.03	0.02	11.00***	4	1653
육아휴직	0.14	0.02	0.02	8.36***	4	165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0.12	0.02	0.01	6.15***	4	1653
가족돌봄휴가	0.13	0.02	0.01	6.62***	4	1653
시차출퇴근제	0.12	0.02	0.01	6.14***	4	1653
선택근무제	0.12	0.01	0.01	5.60***	4	1653
재택근무제	0.13	0.02	0.01	7.01***	4	1653
원격근무제	0.11	0.01	0.01	5.38***	4	1653

*** $p<.001$.

〈표 7〉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β	t	통제변인(B)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전체	0.18***	0.04	0.12	4.72	-0.11***	-0.00	0.05
육아휴직	0.17**	0.05	0.09	3.44	-0.11***	-0.00	0.06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0.14	0.08	0.04	1.76	-0.11***	-0.00	0.08
가족돌봄휴가	0.13*	0.06	0.06	2.23	-0.11***	-0.00	0.07
시차출퇴근제	0.14	0.08	0.04	1.75	-0.11***	-0.01	0.08*
선택근무제	0.09	0.09	0.02	0.96	-0.11***	-0.01	0.08*
재택근무제	0.15*	0.06	0.06	2.55	-0.11***	-0.01	0.08*
원격근무제	0.03	0.11	0.01	0.24	-0.11***	-0.01	0.09*

* $p<.05$, ** $p<.01$, *** $p<.001$.

나.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제도(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전반,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에 대해 아버지의 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간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5,000번 재샘플링한 부스트랩 분석을 수행하였다(Hayes, 2013). 각 경로는 종속변인이 연속형인지 이분형인지에 따라 t 또는 Z 로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 절차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된 것은 편향 수정된 95% 신뢰구간(95% CI)의 상한(ULCI)과 하한(LLCI)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다. 모든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10 미만이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아버지 양육참여,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제도 이용 여부가 아버지 양육참여에($B=.18, p<.001$), 제도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B=-.24, p<.05$),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B=.22, p<.01$), 아버지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을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범위는 .01 ~ .0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자체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제도 이용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 8〉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또는 Z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0.18***	0.04	4.72	0.11	0.26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24*	0.12	-1.96	-0.48	-0.00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22**	0.08	2.72	0.06	0.37

* $p<.05$, ** $p<.01$, *** $p<.001$.

〈표 9〉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4	.02	.01	.08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 양육참여,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가 양육참여에($B=.17, p<.001$),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에($B=.21, p<.01$)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95% 신뢰구간을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범위는 .01 ~ .07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도 이용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 10〉 육아휴직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t</i> 또는 <i>Z</i>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0.17***	0.05	3.44	0.07	0.27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13	0.16	-0.83	-0.43	0.18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21**	0.08	2.61	0.05	0.36

** $p<.01$, *** $p<.001$.

〈표 11〉 육아휴직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04	0.02	0.01	0.07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아버지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 아버지 양육참여,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가 아버지 양육참여에($B=.14, p<.05$),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에($B=.20, p<.05$)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95% 신뢰구간을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범위가 $-.00 \sim .07$ 로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족돌봄휴가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또는 Z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0.14*	0.08	0.08	0.02	0.29
아버지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03	0.24	-0.14	-0.51	0.44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20*	0.08	2.56	0.05	0.36

* $p<.05$.

〈표 13〉 가족돌봄휴가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가족돌봄휴가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03	0.02	-0.00	0.07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아버지의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아버지 양육참여,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가 아버지 양육참여에($B=.13, p<.05$),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B=.20, p<.05$)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을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범위가 $.00 \sim .06$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나 0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

이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고 경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재택근무제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t</i> 또는 <i>Z</i>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0.13*	0.06	2.23	0.02	0.24
아버지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07	0.17	-0.41	-0.41	0.27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20*	0.08	2.57	0.05	0.36

* $p < .05$.

〈표 15〉 재택근무제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아버지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0.03	0.01	0.00	0.0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 대상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이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무유연제도 활용이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행동 변화를 통해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자체의 존재나 이용률 증가만으로는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출산 계획은 경제적 여건, 자녀 수, 직장 환경, 부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행연구(고광만·김소아, 2014; 배광일, 2015;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송민영, 2018; 송유미·이제

상, 2011; 이보라, 2020; 이삼식·최효진,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rtamonova, Sorsa, Berg et al. (2024)의 연구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시간 관련 제도와 출산의도 간의 직접적 연관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육아지원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화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은 양육참여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를 경험한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근무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를 높인다는 기존 연구결과(김진욱·권진, 2015; 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이진숙·이슬기, 2015)와 일치한다. 특히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보다는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제도 이용은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참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나 형태 변경이 가정 내 육아 담당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여전히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김진욱·권진, 2015). Ben-Galim과 Thompson(201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듯이 근무환경의 형식적 변화가 가정 내 돌봄 분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 대상 육아지원제도의 정책 목표와 실제 효과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가 출산 의향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이삼식·최효진, 2014)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어머니 중심의 전통적 육아 문화를 벗어나 아버지가 돌봄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때 가족 내 출산 의사결정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차출퇴근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차출퇴근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여 가족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진욱·권진, 2015; 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재택근무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물리적 가정 상주로 인한 즉각적 육아 대응 가능성이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이나 아버지의 가정 내 물리적 존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돌봄 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물리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자원 확보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데 제도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총체적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선행연구(김유경·구혜령, 2016; 김진욱·권진, 2015;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근무 시간 유연화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가정 내 실질적 돌봄 부담 증진을 위한 보완적 방안과 장기적 지원책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용 자체보다 제도 활용을 통한 아버지의 실질적 육아 참여 증진이 출산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고광만·김소아, 2014; 김유경·구혜령, 2016; 이숙현·권영인, 2009; 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 이진숙·이슬기, 2015). 특히 육아휴직을 이용한 아버지들의 경우 양육참여도 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가능성이 현저히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 돌봄 시간 증가가 부부 양측의 육아 부담 경감 인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후속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같은 적극적 돌봄 중심 제도가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행동 변화를 유도할 때 비로소 어머니의 출산 의향 제고라는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출산을 제고로 직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아버지의 시간적 여유 확보가 어머니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화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근로 시간 재배치를 넘어 자녀 돌봄에 실질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아버지의 양육 관련 심리적 안정감 및 책임 의식 형성을 지원하는 복합적 제도적, 문화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대상 육아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간 확보와 양육참여 유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제도 도입이나 이용률 증가만으로는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아버지가 확보한 시간을 자녀 양육에 실제

로 투입할 때 비로소 발현되므로 아버지의 가정 내 양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대체인력 지원 강화, 직장 복귀 후 경력상 불이익 방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의 돌봄권 강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둘째,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 등 양육참여 증진에 효과적인 제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들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육아휴직의 경우 ‘아빠의 달’ 제도 확대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통해 남성의 제도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공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제도를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 등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가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양육참여 증진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양육참여 증진을 통한 간접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연근무제가 단순한 시간 조정을 넘어서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내 인식 개선 캠페인, 관리자 교육, 성과 중심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택근무의 적용 가능 직종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강화도 정책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적·교육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는 매개변수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양육 교실, 부부 공동 양육 상담,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버지들이 양육 역량과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와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모델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육아의 성별 분업 관련 인식 개선과 육아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를 통해 육아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매개효과는 정책 효과성 평가에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경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단순 이용률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부담 변화, 자녀 돌봄 시간 증가, 부부 만족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

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는 패널 아동이 생후 4개월일 때 시작되어 주로 임신, 출산 경험과 초기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의 이용 여부나 경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 시점이 비교적 이른 단계여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양육을 경험한 가정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제도 이용과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간접 경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도 이용의 세부적 측면과 양육참여의 질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양육참여를 주로 참여 빈도나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나, 상호작용의 질, 정서적 반응성, 참여 활동의 구체적 내용 등도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어머니의 육아 부담 완화와 후속출산 계획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참여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차원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직접효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통한 간접효과로 이해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광만·김소아(2014). 사회적 지원, 일-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경로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35-51.
- 김용훈·이경숙(2022). 아버지 양육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5(2), 73-100.
<https://doi.org/10.47801/KJIMH.15.2.4>
- 김유경·구혜령(2016). 일-가정 균형의 개념과 일-가정 갈등 및 향상과의 관계: 기혼 남성의 일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3), 1-31.
<https://doi.org/10.21478/family.28.3.201609.001>
- 김일옥·왕희정·정구철·최소영(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 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139-155.

- 김진욱·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박은정·이재희·박은영·김연진(2023).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2023-13). 육아정책연구소.
- 박철순·고은미(2018). 아빠 육아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육아지원연구, 13(1), 197-220.
- 배광일(2015). 모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이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4), 59-84. <https://doi.org/10.16999/KASWS.2015.46.4.59>
-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 가족과 문화, 27(1), 271-303. <https://doi.org/10.21478/FAMILY.27.1.201503.010>
- 손덕호(2024. 7. 1). 힘 실리는 인구부 장관... 부총리로 예산 배분 권한도 가져. 조선비즈. <https://v.daum.net/v/20240701140217879> (인출일: 2024년 7월 1일).
- 송민영(2018). 일가정양립정책, 직무만족도가 부부관계를 매개하여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3(3), 5-32. <https://doi.org/10.16978/ecec.2018.13.3.001>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https://doi.org/10.15709/hswr.2011.31.1.27>
- 심우일(2024. 5. 30). 1분기 합계출산율 0.7명대...3월도 출생아 2만 명선 깨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E0PMXIB> (인출일: 2024년 7월 1일).
-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가족지원경영과 정책, 17(2), 93-119.
- 이경은·강희송·안혜경(2023).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교환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4), 315-347. <https://doi.org/10.33900/KAPS.2023.32.4.11>
- 이보라(2020).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16, 167-188. <https://doi.org/10.22538/jnghss.2020..16.167>
- 이삼식·최효진(2014).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53-184. <https://doi.org/10.15709/hswr.2014.34.4.153>
-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정원(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0(1), 323-352. <https://doi.org/10.16999/kasws.2009.40.1.323>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4).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1), 47-80.
- 이진숙·이슬기(2015). 일-가족 양립정책 이용이 일-가족 양립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1), 103-138.
- 이진화·김경은·임원신(2015).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 환경적 특성과 유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9(2), 1-22.
- 이진화·조하나·최혜윤(2012).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6(1), 125-141.
- 임현주·이대균(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https://doi.org/10.18023/kjece.2013.33.2.006>
- 임효진·박효용·장경은·이지은(2015). 어머니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 의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297-31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정재훈·박은정(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24(1), 1-31.
- 조윤경·민용기(201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29-56.
- 최오현(2024. 7. 1). '인구부' 빠르면 연내 신설...이민·지역소멸까지 총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8726638950256&mediaCodeNo=257&OutLnkChk=Y> (인출일: 2024년 7월 1일).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https://doi.org/10.5718/kcep.2019.13.2.145>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홍승아·이미화·김동기(2011).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연구보고서2011-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rtamonova, A., Sorsa, T., Berg, V., Hägglund, A. E., Rotkirch, A. (2024). Social resources are associated with higher fertility intentions in contemporary Finland.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9, 81-116. <https://doi.org/10.12765/CPoS-2024-04>

- Ben-Galim, D., & Thompson, S. (2013). *Who's breadwinning? Working mothers and the new face of family suppor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Friese, B. M. (2000). *The effects of men's involvement in parenting on fertility desires of couples in German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Geisler, E., & Kreyenfeld, M. (2011). Against all odds: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1), 88-99. <https://doi.org/10.1177/095892871038573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Lee, Y. (2022). Is leave for fathers pronatalist? A mixed-methods study of the impact of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uples' childbearing intentions in South Kore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1(4), 1471-1500. <https://doi.org/10.1007/s11113-022-09697-4>
- Thomas, J. A. C. (2021). *Facilitating childbearing in Taiwan: the role of domestic gender equity and parental lea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Liverpool.
- Zhang, T.-T., Cai, X.-Y., Shi, X.-H., Zhu, W., & Shan, S.-N. (2023). The effect of family fertility support policies on fertility, their contribution, and policy pathways to fertility improvement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6), 1-25. <https://doi.org/10.3390/ijerph20064790>
- Yang, Y., He, R., Zhang, N., Li, L. (2023). Second-child fertility intentions among urban women in Chin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4), 1-16. <https://doi.org/10.3390/ijerph20043744>
- Yao, Y. (2024). Research on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teachers' second child fertility intentions: Taking Jinan as an example. *PLoS ONE*, 19(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9838>
- Zhao, Y. (2024). Childcare balancing policy in Japanese corporations and women's fertility intention. *Social Sciences*, 13(3), 1-13. <https://doi.org/10.3390/socsci13030175>

- 논문접수: 2024년 11월 5일 / 수정본 접수 12월 24일 / 게재 승인 4월 16일
- 교신저자: 허가영,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 수료, hugayoung@daum.net

Abstract

Tim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for Fathers and Their Effects on Mothers' Birth Plans: The Mediating Role of Paternal Involvement

Ji Young La and Gayoung Hu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im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for fathers on mothers' subsequent childbirth plan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Using data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fathers' use of tim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did not have a direct, significant impact on mothers' subsequent childbirth plans. Second, fathers who utilized parental leave, family care leave, or worked via telecommutin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ir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mothers' subsequent childbirth plans. Fourth, the influence of tim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on mothers' childbirth pla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through the complete media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fathers' utilization of tim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can positively influence family childbirth decisions by promoting thei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reby highlighting the mediating role of fathers' involvement and offer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licy effectiveness.

Keyword: Child Care Policy, Time-related Childcare Policies, Paternal Involvement, Subsequent Childbirth Plans